

지난해의 우리산림

윤경덕 / 산림청 임정과

1. 머리말

산림은 그 나라 부(富)의 척도라고 했다. 산림은 부의 척도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공해정도도 가르켜 주는 바로미터도 될 수 있다 하겠다.

지난 이삼십년 사이 우리나라 산림의 모습은 몰라보게 많이 달라졌다. 산림이 얼마나 울창한지를 보여주는 ha당 임목축적이 지난 1996년말 현재로 50m³대에 진입하였으니, 6·25사변이 발발하여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 1951년말의 ha당 축적4.8m³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있다는 것이다.

2. 산림면적과 축적의 변화

지난해 말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6,448ha로 전년에 비하여 여의도 크기의 약5배가 되는 4천ha가 감소한 반면, 총 축적은 324백만m³로서 전년에 비해 15백만m³이 증가하였고 ha당 평균축적이 50m³에 이르게 된 것이다.

8·15해방과 6·25사변과 같은 큰 사회적 혼란을 겪는 바람에 파괴된 우리나라 산림은 대부분이 황폐화된 빨간 민둥산이었기 때문에 해마다 가뭄

과 홍수가 연례행사처럼 찾아와 수많은 재산과 생명을 앗아간 것이 그리 오래지않은 5,60년대의 일로 기억이 생생하다.

그당시 모래만 데굴데굴 구르는 험하고 척박한 땅에 아무 나무나 심는다고 사는데 아니어서 시급한 녹화와 농산물 임산연료 해결을 위하여 리기다소나무, 오리나무, 아까시나무를 많이 심었던 관계로 이런 수종의 성립지를 도처에서 볼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지난날 이들은 메마른 땅을 피복하고 녹화시켜, 시급한 연료를 공급하고 지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구리가 소시적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때의 조림을 비판하는 사람이 없지않아 다소 유감스럽다. 우리나라 산림축적이 50m³에 이르고 있음은 치욕적인 한·일합방 당시의 1910년말 축적 40m³대를 넘어서 임정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나, 이웃 일본의 124m³, 세계최대의 열대목재자원을 가진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 열대림 자원보유국인 인도네시아의 165m³에 비교하더라도 이작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할 것이며, 용재적측면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할 것이다.

표 1.

산림면적과 축적의 변화

| 연 도 별 | 면적(천ha) | 축적(ha ³) | ha당축적(m ³) | 비 고 |
|-------|---------|----------------------|------------------------|---------------------------|
| 1935 | 16,199 | 215,770 | 13.31 | 남북한 전체 여기서부터는 남한 만임 |
| 1951 | 6,415 | 30,820 | 4.80 | |
| 1960 | 6,701 | 63,995 | 9.55 | |
| 1965 | 6,614 | 61,076 | 9.23 | |
| 1967 | 6,640 | 63,746 | 9.60 | |
| 1970 | 6,611 | 68,773 | 10.40 | |
| 1975 | 6,635 | 105,352 | 15.88 | |
| 1980 | 6,568 | 145,694 | 22.18 | |
| 1985 | 6,531 | 179,381 | 27.47 | |
| 1990 | 6,476 | 248,426 | 38.36 | |
| 1995 | 6,452 | 308,826 | 47.86 | |
| 1996 | 6,448 | 323,780 | 50.21 | |

3. 임산물 생산 현황

여기서 임산물이라함은 주산물인 목재와 종실·버섯과 같은 부산물을 모두 일컫는다. 지난해 생산된 임산물을 금액으로 치면 모두 10,499억원으로 국민총생산에 기여한 비율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0.3% 수준이었다.

산업별로 국민총생산 기여도를 보면 서비스업이 근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광공업, 건설·전기·가스·수도, 정부 및 민간 비영리 생산자, 임산물생산액이 포함된 농림어업은 6%대로서 가장 낮은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본 임산물 생산(액) 조사는 앞에서 언

급한 바있는 한·일합방을 하던해인 1910년부터 조사해 온 것으로, 해방되던 1945년까지는 용재 등 14개 품목의 생산량과 금액을 조사하였으나 지난 1994년부터 10개종류 37개품목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한때는 66개 품목까지 확대하여 조사한 바있으나 생산이 미미하므로 실용성이 없어 현재의 37개 품목으로 내렸은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은 3,866,404억원(잠정)으로 이가운데 임업생산액이 차지한 금액은 10,499억원으로 90.4%에 해당하는 9,491억원이다. 국민총생산(GNP)은 국민경제의 모든 생산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와 감가상각액의 합계가 되는것처럼 임산물

표 2.

연도별 임업생산액의 국민총생산 기여도 변화

단위 : %

| 산 업 별 | '65 | '70 | '75 | '80 | '85 | '90 | '95 | '96 | 비 고 |
|-------|------|------|------|------|------|-----|-----|-----|----------------------------------|
| 농림어업 | 42.9 | 27.8 | 23.4 | 14.7 | 13.3 | 8.7 | 6.6 | 6.3 | · '96숫자는 잠정치임 · 임업은 농림어업에 포함됨 |
| 임업 | 2.6 | 2.4 | 1.6 | 1.1 | 0.7 | 0.3 | 0.3 | 0.3 | |

생산액도 모두 계상되는게 아니라 매년 UN통계국의 국민계정 체계에 의한 산업별 가득울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임업 90.4%, 농업 68.2%, 어업 58.5%와 같은것인데 임업이 가득울에 있어 단연 선두에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임산물 가운데 주산물인 목재와 부산물은 대략 1:9 정도로 국민총생산에 기여하여 산림부산물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밤·호도·대추 등과 같은 종실류가 전체 임산물 생산액의 32.4%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녹비·퇴비 등의 농용자재, 버섯류, 산채류 순이고 목재는 7.0% 정도를 점유하여 다섯번째가 되고 있다.

산업사회가 발달할수록 1차 산업의 국민총생산 기여도는 감소하는게 필연이라 할 수 있고 위 표 2에서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1965년 농림어업 총생산액이 국민총생산에 기여한 비율은 42.9%였으나 30여년이 지난 작년에는 6.3%로 떨어져 매년 평균 1.1% 포인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맺음말

지난 5,60년대 빨강계 혈벗었던 우리산림이 성공적인 속성녹화로 강산이

푸르게 되었고 ha당 축적도 50m'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산림이 가장 많이 파괴된 6·25사변이 끝난지 45년만에 이룩한 것이다. 그리고 제1차 치산녹화 10년계획의 첫해인 1973년말 현재 임목축적 11³m에 보다는 4.5배나 증가한 것으로 이제는 조직적이고 자연과 가까운 산림경영(Naturhe Waldwirtschaftsft), 소위 자연친화적 산림경영을 할 때로 접어들었다.

국민총생산의 기여도를 높이도록 임산물생산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양질로 생산하여 단가를 높이는 방법을 상정할 수 있으나 그보다는 새로운 품목, 예를들어 야생화, 야생조수, 조경수목 등과 같은 품목을 새로 개발하여 국민총생산 기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끝으로 통계는 정책입안이나 시험연구 등에 있어 아주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통계가 생성되는 과정에는 별관심을 두지 않는게 일반적인 경향인 것 같으나 이러한 풍조가 사라질 때에만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통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